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FTA”

보도일시

3월 20일(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3.19

생산부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과 장

신희동 동향분석 팀장

담당자

김수동 수석 전문관
(2100-8498)

제목: 한미FTA,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제: 한미FTA와 글로벌 공급기지를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

-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는 FTA 체결 이후 새롭게 전개될 부품소재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부정책방향과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투자, 섬유, 수산업, 자동차, 농업, 통신분야에 이어 오는 3월 20일(화) 부품소재분야 토론회가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산업연구원 공동 주최하에 「한미 FTA와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COEX 본관 3층 장보고홀 334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의존관계, 그리고 FTA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부품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을 제시하여 한미 FTA 이후 부품소재산업의 육성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금번 토론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홍배 박사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52억 4,190만 달러의 생산 증가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양국간 부품소재산업의 무역불균형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정만태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대일 의존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선도적 부품·소재기술 및 첨단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적 공급기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의 역할을 대체하는 동북아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기대하고 있다.

첨부 : 상세 일정 및 발표 내용 1부 /끝/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첨부 1: 상세일정]

2007년 3월 20일, 화요일

진행순서

진행사회 : 김수동 박사(수석전문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13:30~14:00 접수

14:00~14:10 개회사
홍영표 단장(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14:10~15:00 주제발표
○ 정만태 박사(산업연구원)
「한미FTA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
○ 이홍배 박사(대의경제정책연구원)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의존관계와 FTA 효과」

15:00~16:00 업계입장
○ 김윤명 팀장(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차종범 본부장(전자부품연구원)

○ 이후상 책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16:00~16:15 중간 휴식

16:15~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좌 장: 윤우진 본부장(산업연구원)
○ 토론자: 변종립 과장(산업자원부)

전병희 교수(인덕대)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정경수 팀장(한국기계산업진흥회)

[첨부 2 : 발표내용요약]

발제 1: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의존관계와 FTA효과

이홍배 박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1.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수출의 46%('06년)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 1997년 이후 10년 연속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04년 이후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흑자 구조 정착.

<표 1>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입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부품소재(A)	수출	620	678	820	1,079	1,238	1,487
	수입	592	649	758	927	1,011	1,140
	무역수지	28	29	62	152	227	347
전산업(B)	수출	1,504	1,625	1,938	2,538	2,844	3,257
	수입	1,411	1,521	1,788	2,245	2,612	3,093
	무역수지	93	103	150	294	232	164
비중(A/B)	수출	41.2	41.7	42.3	42.5	43.5	45.7
	수입	42.0	42.7	42.4	41.3	38.7	36.9

자료: KOAMI DB.

□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대미 무역적자 폭은 '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03년 29억 달러 ⇒ '06년 2억 달러 적자로 큰 폭 축소.

- 전자부품의 경우 대미 수출입(각각 44%, 55%)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유

- 부품소재의 대미수입 비중('06년)은 전체 수입의 14%를 기록, 일본(26%), 중국(14.0%)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대미 교역비중은 '90년대 초 21%에서 '06년 13%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중 교역비중(5%→25%)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냄

<표 2>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101(16.3)	105(15.5)	100(12.2)	125(11.6)	140(11.3)	158(10.6)
수입	115(19.4)	122(18.8)	129(17.0)	144(15.5)	152(15.0)	160(14.0)
무역수지	-14	-17	-29	-19	-12	-2

주: ()는 전체 수출입대비 비중.
자료: KOAMI BD.

2.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수입의존관계와 특징

□ 우리나라의 대미 의존도는 그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관찰되어, 국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중간재)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반도체(25%)의 대미 의존도가 가장 심각하며, 컴퓨터사무기기, 가전통신기기, 정밀기기, 수송기계, 전자부품 순으로 크게 관찰됨.
- 반면 미국의 대한 의존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컴퓨터사무기기(4%), 가전통신기기(3%), 전자부품 등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산업분류	한국	미국
섬유제품	7.9	1.6
화학물·화학제품	6.7	0.3
고무·플라스틱제품	7.6	0.6
비금속광물제품	3.9	0.4
1차금속제품	6.4	0.7
조립금속제품	5.0	0.7
일반기계부품	7.3	0.7
특수기계부품	8.1	0.9
전기기계 및 장치부품	6.9	0.6
가전 및 통신기기부품	18.1	2.7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20.1	4.0
반도체부품	24.9	0.7
전자부품	10.0	2.4
자동차부품	7.0	1.0
수송기계부품	11.6	1.1
정밀기기부품	11.7	0.9

주: 국제 I-O모형에 의한 후방연관효과 측정 결과.

3. 한·미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

□ 우리나라의 대미 국제기술분업도(기술·중간재 수입의존도)지수는 그 반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대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됨.

- 그러나 양국 모두 3시점을 통해 분업도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품소재산업의 상호 의존관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미 의존도 심화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중간재수입 확대에 따른 요인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됨.

- 특히 전기전자(반도체·통신기기)의 대미 의존도는 가장 심각하며,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파악됨.

<표 4> 한·미간 분업도지수의 수준차이 및 괴리요인 변화

연도	국제기술분업도지수			괴리요인(구조적 요인)		
	한국	미국	수준차이 한국-미국	생산기술적 요인	중간재투입 요인	생산구조적 요인
1990	0.0196	0.0006	0.0190	-0.0008	0.0145	0.0056
1995	0.0207	0.0011	0.0196	0.0000	0.0133	0.0062
2000	0.0220	0.0015	0.0205	-0.0007	0.0135	0.0077

주: 국제 I-O 모형의 국제기술분업도(ITS)지수 분석 결과.

4.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 한·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52억 4,190만 달러의 생산증가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자동차, 1차 금속, 섬유 가전통신기기, 전자부품 순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관찰됨(미국: 56억 달러 생산증가효과 유발).

- 관세비율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가격하락률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생산증가를 또한 크게 관찰됨(한국: 29%, 미국 5%).

○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 관세비율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한국: 7.3%, 미국: 1.7%)

□ 이상과 같이 한·미 부품소재산업은 FTA체결과 이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산업생산 활동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물론 한국의 대미 부품소재(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높다고 할 수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직접적인

대미 무역수지 개선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음.

- 그러나 양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 기술적 측면보다는 중간재수입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경쟁력 제고 및 생산 증가에 따른 대미 최종재 수출증가효과를 통해 양국간 무역불균형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대세계 수출증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5>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관세비율과 가격하락률 변화(%)

산업 분류	한 국		미 국	
	관세비율	가격하락률	관세비율	가격하락률
섬유제품	0.46	1.07	0.61	0.82
화학물·화학제품	1.01	1.46	0.07	0.11
고무·플라스틱제품	0.45	1.20	0.12	0.19
비금속광물제품	0.31	0.87	0.04	0.07
1차금속제품	0.41	1.10	0.07	0.13
조립금속제품	0.48	1.09	0.07	0.12
일반기계부품	0.55	1.12	0.08	0.12
특수기계부품	0.41	1.01	0.13	0.19
전기기계 및 장치부품	0.61	1.16	0.06	0.09
가전 및 통신기기부품	0.49	0.86	0.07	0.11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0.51	0.92	0.03	0.08
반도체부품	0.08	0.22	0.02	0.04
전자부품	0.56	1.00	0.05	0.09
자동차부품	0.39	1.13	0.13	0.21
수송기계부품	0.23	0.70	0.08	0.14
정밀기기부품	0.36	0.84	0.06	0.11
합 계	7.31	15.74	1.71	2.62

<표 6> 한·미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증가 파급효과(% , 백만 달러)

산업 분류	한 국		미 국	
	생산증가율	생산증가액	생산증가율	생산증가액
섬유제품	1.66	426.1	1.08	1,203.0
화학물·화학제품	4.87	1,505.7	0.70	739.7
고무·플라스틱제품	2.01	254.9	0.30	325.1
비금속광물제품	1.46	124.8	0.13	70.0
1차금속제품	4.32	593.2	0.48	280.6
조립금속제품	1.76	216.3	0.29	296.5
일반기계부품	1.66	212.7	0.25	231.6
특수기계부품	1.46	187.1	0.26	241.2
전기기계 및 장치부품	1.73	178.1	0.17	108.1
가전 및 통신기기부품	0.97	300.0	0.16	162.4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1.03	175.8	0.12	75.2
반도체부품	0.44	67.4	0.28	33.3
전자부품	1.65	223.4	0.19	143.8
자동차부품	1.81	635.0	0.33	1,367.4
수송기계부품	0.78	91.1	0.18	201.1
정밀기기부품	1.03	50.3	0.18	97.7
합 계	28.65	5,241.9	5.10	5,576.7

발제 2: 한·미 FTA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

정만태 박사(산업연구원)

○ 한국 부품·소재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

- 산업연구원의 조사(2005.2)에 따르면 국내업체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은 2010년이 되면 대부분 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어들어 개도국들과 경쟁하거나 이전해야 할 운명
-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닛크래커(nut-cracker)속에 위치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7%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의 추격을 우려하여 기술이전을 극도로 경계
- 한편,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기술을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음.

○ 이 시점에서 한·미 FTA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음.

○ 한·미간 분업구조를 고려하면 우리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

- 현재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소재의 대부분은 가격이나 품질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수입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음.
- 반면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중국, 일본과 경쟁하고 있어 가격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업체로서는 2~3%의 낮은 관세라도 폐지되면 수출이나 기업이윤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미국에 대해서만 8% 수준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폐지하면, 비슷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일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주요 12대업종의 대미, 대일 수입품목을 조사한 결과(부품소재진흥원)에 따르면, 각 업종의 상위 50개 품목 중 53.7%가 서로 일치
- 결국 일본과 미국은 우리의 부품·소재수입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한·미 FTA가 이루어져 우리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품목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

○ 부품·소재의 수입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핵심부품·소재의 국내생산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

- 일본기업과는 달리 미국기업들은 일정 수요가 확보되면 생산을 현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최근 GM대우 등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용능력만 있으면 연구개발 기능까지도 미국기업들은 현지화
- 투자유치는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의 주요 수입대상국인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나 미국 업체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진출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

○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이 지니고 있는 원천기술임.

- 미국의 원천기술부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본도 미국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핵심 부품·소재의 제품개발 및 생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부품·소재가 기술 및 무역에 있어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는 경우 일본을 뛰어 넘을 수 없고, 보다 앞선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을 활용해야만 가능
- 부품·소재부문에서 일본은 미국과 한국 모두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부문이 제한적이어서 FTA를 통한 한·미간 협력강화와 교류확대는 부품·소재부문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한·미 FTA는 부품·소재산업이 발전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앞당기는 역할 수행

-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수출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업체들이 부품·소재조달체제가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요만을 목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 특히, 미국의 주요 조립업체들은 경영악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조립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조달선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부문으로 전환하고 있어 미국의 다국적 조립기업을 활용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 결국 한·미 FTA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대일 의존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선도

적 부품·소재기술 및 첨단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적 공급기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의 역할을 대체하는 동북아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미 FTA를 부품·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확대되는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원가, 품질, 마케팅, 브랜드이미지 등 기업의 기본역량을 강화해야하고, 세계적 수요를 소화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규모가 대형화될 필요
- 기업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M&A나 업체간 협업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부품·소재업체의 통합브랜드제정이나 미국 등 해외 유명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 시장정보 및 마케팅인력 제공 등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
- 부품·소재기업들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획득하여 자체기술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단순히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바라기 보다는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동연구 및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선점하거나 미국내 기업들을 M&A하여 기술을 획득하는 방안을 장구